

## 소량의 단백뇨를 보이는 비당뇨성 신장병증에서 Losartan의 치료 효과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도연실 · 최소연 · 장은희 · 김용균 · 최경아 · 이정은 · 허우성 · 김대중 · 오하영 · 김윤구

**목적** : 단백뇨를 동반하는 만성 신장병증에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 치료는 단백뇨를 감소시키고 신장기능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그러나 이 약제가 신기능이 정상이고 단백뇨가 소량일 때 효과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. 이에 연구자들은 비당뇨성 만성 신장병증 환자 (estimated GFR>60 mL/min/1.73m<sup>2</sup>, urinary protein to creatinine ratio 0.4-2.0 g/g)를 대상으로 randomized, open labeled, controlled study를 시행하여 losartan의 치료 효과를 관찰하였다.

**방법** : 대상 환자는 32명 (치료군 17명, 대조군 15명)이었고 치료군에서는 losartan 100 mg/일을 투여하였다. 연구 시작 6개월 후 평균 동맥압, 사구체 청소율, 요단백, 요알부민 배설량, 요중 안지오텐시노겐 배설량 변화 등을 관찰하여 비교하였다.

**결과** : 연구 시작시 치료군과 대조군 사이에 평균 동맥압, 사구체 청소율, 요단백 배설량 (1.13±0.36 g/g vs. 1.06±0.36 g/g), 요알부민 배설량 (0.94±0.38 g/g vs. 0.86±0.33 g/g)은 차이가 없었다. 6개월 후 평균 동맥압, 사구체 청소율은 두 군 모두에서 연구 시작시와 비교하여 의미있게 변화하지 않았으나, 치료군에서 요단백 배설량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(0.63±0.37 g/g vs. 0.99±0.43 g/g, p<0.05), 요알부민 배설량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(0.52±0.33 g/g vs. 0.88±0.40 g/g, p<0.05). 요중 안지오텐시노겐 배설은 치료군 10명과 대조군 8명에서 측정하였으며 연구 시작시 (100%)와 비교하여 치료군에서는 감소하고 대조군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(93.8±34% vs.139±82%).

**결론** : 신기능이 정상이고 소량의 단백뇨를 보이는 비당뇨성 만성 신장병증 환자에서 losartan 치료는 혈압 강하 없이 단백뇨 감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신기능 보호 효과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.